

소녀상 옆에 선 스님들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사회노동위, 정기 수요시위 주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근혜 정권의 대표 실정인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위안부 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노동위(위원장 해용스님)는 지난 14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운영 중단과 합의 무효화를 촉구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28일 한국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가 10억엔(한화 약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타결, 지난 7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한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출범한 바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사회노동위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부위원장 도철스님과 실천위원 고금·혜찬·혜문·원해·혜동·유엄스님을 비롯해 2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사회노동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몇 푼으로 인간의 양심을 팔아먹은 합의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리어 당사자를 회유하고 국민을 옥박질했던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인 과보가 ‘1년도 채 안 돼 국민에게 탄핵을 당하는 업보로 나타났다’며 “전 국민 마음속에 분노와 한탄을 자아낸 합의는 즉각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양국에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전면 무효화 △위안부 피해 당사자와 한국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날 대표 발언에 나선 혜찬스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무지와 무능, 거짓과 위선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가 전면 무효화될 때까지 집회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본대사관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위안부 합의의 무효화를 촉구하는 10초간 함성을 외쳤으며, 1시간가량 문화공연을 하며 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곁을 지켰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도난당한지 50년 만에 송광사로 돌아가는 오불도를 천견하는 스님들.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해외유출 성보 환수 ‘모범사례’
50년 만에 돌아간 송광사 오불도
29일 봉안식…1월말 일반 공개

조계종림 송광사 오불도가 도난당한지 50년 만에 사찰로 돌아갔다. 조계종과 송광사는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환수된 오불도를 천견하고, 불화를 송광사로 이운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그간 종단은 도난당한 불교성보 환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에 송광사 오불도도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돼 기쁘다. 환수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 모두 노력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라며 치하했다. 또 “돌아온 성보가 사찰에서 잘 봉안되고, 문화제도 난 및 방재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송광사 주지 진화스님은 “2년 전 오불도가 미국 포틀랜드박물관에 기탁보관 중이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단이 박물관 측과 지속적

인 협상 끝에 사부대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인사하며 “도난당한 오불도 한 폭과 송광사 16국사진영 환수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광사는 오는 29일 대웅전에서 오불도 봉안식을 갖고, 2017년 1월30일부터 2월25일까지 사자루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종단은 송광사 오불도가 해외로 유출된 불교성보 환수의 모범사례라고 자평했다. 종단과 문화재단, 송광사와 기증자, 기탁박물관이 도난문화재 환수를 위해 협력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 송광사성보박물관과 포틀랜드 박물관이 교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8일까지 송광사 스님들과 종단 및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조건 없이 반환해준 마티엘리 부

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신앙대상으로 오불도를 예경하는 모습 등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한다. 성보에 대한 조계종과 사찰의 노력은 현재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LA카운티박물관 소장 신항사 및 동화사 불화 환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문화부장 정형스님은 “종단은 일제시대 및 과거 악탈문화재 환수와 더불어 근현대 도난당한 불교성보까지 환수정책을 펴고 있다”며 “도난백서 영문판을 발간하는 것 외에도 도난불교문화재 모니터링을 통해 더 많은 불교성보를 확인해 유상기증, 무상기증, 구매환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여현경 기자 eonaldor@ibulgyo.com

원로 스님의 눈물

지난 15일, 장수 죽림정사를 찾아 원로의원 도문스님을 만났다. 여러 대화 중 내팔에 세운 대성석가사 불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 건립된 대성석가사는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도문스님이 처음 이곳을 찾은 해가 1992년이다. 부지 구입은 1995년에 이뤄졌다. 그 연유가 놀랍다.

“처음 내팔을 찾았는데, 가난한 주민들이 물려와 한 푼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그 가난에 찌든 모습을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범당보다 더 중요했어요.”



안직수 기자의
현장에서
isahn@ibulgyo.com

결국 스님은 부지 매입을 위해 가져간 돈을 모두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약을 다음해로 미뤘다. 하지만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스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못했단다. 그 일화를 전해주는 노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스님은 석가사 부지 마련 과정에서 초막을 비워야 했던 800여 가구 주민들에게 쌀 800포대 사서 나눠줬다. 그리고 상좌를 시켜 땅을 계약했다.〈삼국유사〉에 경주의 한 사찰에 살던 정수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추운 겨울에 출산을 앞둔 한 걸인을 본 정수법사가 본인이 걸치

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주고 알몸으로 절에 뛰어갔다든 일화다. 서울역에서 북한산 절로 가면서 가지고 있던 돈과 옷을 걸인들에게 나눠줬다는 춘성스님, 탁발을 나갔다가 얻은 쌀을 모두 걸인에게 나눠주고 길을 가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걸인을 또 만나자 내복을 벗어줬다는 묘엄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보인 자비심이 떠올랐다. 내팔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회고하며 눈물을 쏟는 원로의원 스님의 모습에서 ‘왜 우리가 불교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최순실 여파로 기부문화가 썩공 일어붙으면서 ‘사랑의 열매’가 진행되는 사랑의 온도계가 13℃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90℃였던 것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불자들이라도 나서 우리 사회의 추위를 훈훈하게 녹였으면 한다.

‘낭송과 창작 아카데미’ 개설

유심, 1월부터 격주 화요일

시조문학 창작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아카데미가 내년 1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열린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부설 유심아카데미(원장 홍성란)는 내년 1월10일부터 격주 화요일 ‘낭송과 창작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3개월 단위로 열리는 아카데미의 주제는 ‘치유·창작과 낭송활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카데미는 1월부터 3월까지 ‘고시조와 이병기의 작품론’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이은상·조운·김상옥 시인의 작품을 순차적으로 연구한다. 또 매 강의마다 시조 낭송시간을 갖고 “시조가 갖고 있는 운율의 아름다움을 직접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한다는 취지다. 홍성란 원장은 “우리 시의 뿌리를 알고, 우리 시를 꽃 피운 근·현대 시조시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새로운 창작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유심아카데미는 내년 8월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서 개최되는 만해축전에서 시조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전국 규모의 시조낭송대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카페 유심아카데미(cafe.daum.net/HSR-LiterAt-Academy)를 참고하면 된다.

안직수 기자 isahn@ibulgyo.com

“기록으로 저항한 기억들
아픈 강을 어루만지길”

지울스님, 영주댐 토론회서 밝혀



내성천 지킴이로 활동해 온 지울스님(사진)이 지난 15일 서울 조계사교육관 2층 강의실에서 열린 ‘물새는 영주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환경문제에 있어 승소 가능성은 1~2%도

되지 않는데도 소송을 계속하는 이유는 내성천이 가진 가치의 중요성, 보존의 필요성 외에도 법적 판단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록으로 저항한 기억들이 아픈 강을 어루만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동안 10여 차례 소송을 진행해오면서 미숙함도 아쉬움도 많았지만 잃은 것이 있다면 얻은 것도 있다”며 “이 싸움의 기록을 모아 강을 기억하고 그 다음 세대에겐 예전처럼 아름다운 강을 돌려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지울스님 등 내성천의친구들이 ‘경북 영주댐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해 달라’며 정부와 삼성물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울스님은 “영주댐으로 인한 강의 수질과 하상 변화, 생태계 파괴, 지하수 고갈, 안전문제 등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이를 ‘감성적’으로만 치부해 버렸다”며 “오늘의 판결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실들을 조사하고 기록해 갈 것”이라고 했다.

이경민 기자

불기2561(2017)년도

각급 승가고시 일정공고

불기2561(2017)년도 각급 승가고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급 승가고시	2017년 10월 28일(토)(음 9월 9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2급 승가고시	2017년 10월 27일(금)(음 9월 8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3급 승가고시	2017년 3월 25일(토)(음 2월 28일) 오전 8시 ~ 오후 5시	
4급 승가고시	2017년 3월 11일(토)(음 2월 14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상반기	하반기
5급 승가고시	2017년 2월 23일(목)(음 1월 27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추후 공지	

※ 기타사항은 교육원 승가고시 담당자 ☎ 02)2011-1809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불기2560(2016)년 12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회 위원장 지 안



불기2560(2016)년 12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고시위원회 위원장 지 안

